

교회목표

- 1. 찬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광의 왕

(시편 24:1-10)

시편 24편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벵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 합니다. 다윗이 영광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는 랍비들에 의해 많이 읽혀졌는데 특별히 매주 첫 날 예배 시에 읽혀진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성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마태복음 21:9을, 성전 안에서는 시편 24:9-10을 각각 노래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언대로 성전 안에서는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은 메시아 시입니다.

2-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며 7-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심을 묘사합니다.

1. 땅은 여호와와 의 것

“땅은 거기에 중대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1절).

다윗은 군사적인 계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좌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약궤가 에벵에돔의 집으로부터 시온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놓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므로 본편의 서두에서는 여호와와 위엄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서술합니다. 여호와와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섭리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 다윗 왕국이 회복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시며 영적인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 누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나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4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내면성과 외면성을 말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청결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single mind). 곧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신앙인의 마음은 항상 오직 하나 하나님만 향해 있어야 하며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란 행위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에게에는 내적이 성결과 함께 외적 성결이 요구됩니다. 빌라도는 순간 뉘우면 깨끗해지는 줄로 착각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로 만군이라 함은 지상군뿐 아니라 천상의 영들을 포함한 것으로 여호와와 천상의 주권자시며 우주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입성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문은 마땅히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4절).

정직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맹세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 신앙은 순결과 성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5절).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구약의 이신득의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자칭 의인이라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 됩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칭의는 성화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3. 왕의 오심

땅은 그의 오심을 준비하고(1-2절), 땅의 거민은 그를 맞을 준비를 하며(3-6절), 준비된 자에게 왕이 오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8절).

강하고 능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시편 24편은 응답식으로 되어 있어서 3, 8, 10절은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7, 9절은 언약궤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로 만군이라 함은 지상군뿐 아니라 천상의 영들을 포함한 것으로 여호와와 천상의 주권자시며 우주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입성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문은 마땅히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7, 9절). 영원한 분은 오래 된 분이라는 뜻이지만 영광의 왕을 영접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재산과 신분과 도덕성의 우월성을 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모두 비천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원하시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 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 받은 마음 문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얻으며 같은 뜻을 날마다 지키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전도위원회 특별전도에 나서

3월15일(수) 도곡 렉슬아파트 단지 3000여 세대 전도

전도위원회(위원장 하영수 장로)는 새로 입주하는 도곡 렉슬 아파트 단지 3000여 세대를 새로운 전도의 어장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하고 특별 전도에 나선다.

교회는 순례자 특별판을 제작, 간단한 전도용 선물과 함께 입주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전할 예정이다. 70인전도대를 비롯한 모든 전도위원들이 함께 전도에 나서게 된다. 중보기도팀은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기도에 힘쓰게 된다. 또한 이번 전도를 위해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

우리 서울교회가 만민에게 전도하는 교회, 민족을 복음화 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강남구 일원의 복음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기도한다.

특별전도팀은 15일(수) 오후 1시3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4월 학습세례식 앞당겨

4월5일(수) 수요일에 시간을 가져

4월 학습 세례식 일정이 앞당겨진다. 교회 방침에 따라 2개월에 한 번 씩 짝수 달 셋째 수요일에 학습 세례식을 가져왔으나 4월중에 교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들이 예정되어있고 무엇보다도 부활절이 4월16일 주일로 정해져 있어 이번 학습 세례식을 앞당겨 4월

에 세례 받는 성도들이 부활절에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4월에 학습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여 주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기도한다.

교회 종탑 차임 매일 정오에 울려

우리교회는 지난주일 교회 종탑을 제작완료하고 점등식과 함께 첫 종을 울렸다. 교회는 종탑에 설치된 차임을 매일 정오에 한 번 12번 치는 종소리를 울리기로 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울리고 있다.

한편 주일에는 오전 8시30분에 타종한다.

널리 퍼져나가는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섬김위원요람 제작

2006섬김위원 요람 제작이 완료되어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각 부서 섬김위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직분별·교구별로 수록되었다.

구입을 원하는 성도들은 교회 1층 서적부에서 구입하시기 바란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요덕스토리'공연

3월15일-4월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북한의 인권 및 종교 탄압의 실체를 현장감있게 그대로 묘사한 요덕 스토리가 3월15일-4월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양재동)에서 공연된다.

1995년 남한 방송을 들은 이유로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다 탈출한 탈북자 출신 감독 정성산 씨가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를 소재로 한 연극을 자신들이 경험한 그대로 표현하여 무대에 올린다.

북한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공연은 화요일-오후8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4시, 8시 두 번 있다.

목회자의 편지

교회 갱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할렐루야.

평소 존경하는 이종운 목사님

벌써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메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2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여 이 목사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많은 감명을 받았던 김○○ 목사입니다.

특히 이 목사님의 영성 있는 깊은 진리의 말씀과 신학체계에 대해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 입장에서 증거한 여러 가지 말씀과 신학적 조명에 대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편 목사님께서 서울교회의 사역에도 분주하실 터인데 전국에 계신 목회자에게 교회갱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에도 이러한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20대 후반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약 20년간 정치활동을 하다가 47세에 신학교에 가서 7년간 신학공부를 마치고 54세에 목사임직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반독재 혹은 반부패 민주화 운동을 했지 오늘날과 같은 좌파적 이념을 절대로 따르거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이제는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목회현장에 들어와 사역을 하다 보니 현실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칭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개혁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개혁세력에게 청산되어야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께서 새문안교회에서 설교한 말씀처럼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등 수 많은 사상들이 교회를 너무 오염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성한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교회갱신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에 대해 깊은 감

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무례하게 글을 올린 것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교회와 이 목사님의 삶의 모든 여정에 날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샘솟는 물처럼 넘쳐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리고 또 새 학기에 뵙겠습니다.

2006.2.12

인천에서 김○○ 목사



민약한자구제-루디아봉사

루디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김인숙 집사(12교구)

"집사님 간이 좀 싱겁지 않을까?" 3번째 수요일이면 교회 주방에서 루디아 전도회원들이 모여 음식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다음날 양로원에 봉사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루디아 전도회는 사각 장애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천호동에 위치한 양로원에 성경공부 하러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약 80여 분께 말씀 전 찬양인도를 하고 점심을 대접하며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봉사는 올해까지 이어 어느덧 일 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시장 봐오는 일부터 갈 때마다 떡을 준비해오는 집사님, 물이 아

파도 기꺼이 나와서 걸쭉이를 하고 전 부치는 집사님, 아이가 어려서 먼저 가는 것이 마안하다며 부지런히 채소 다듬어 씻어 주고 가시는 집사님, 서로 집에 있는 재료를 가져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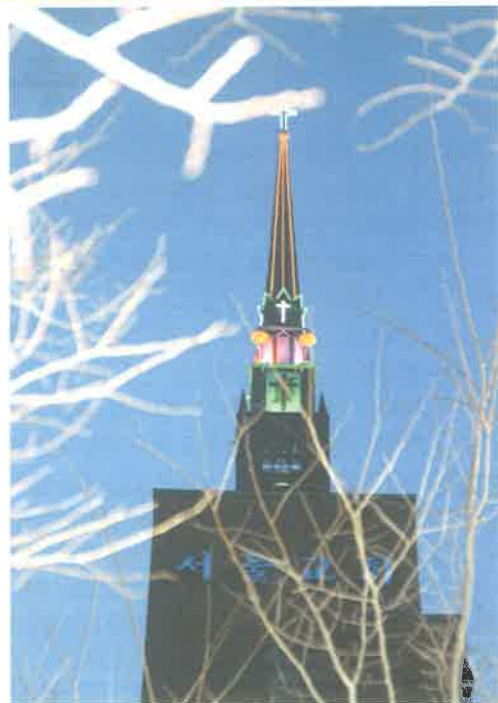


집사님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일손이 부족하면 어쩌나 믿음이 적어 걱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간까지 맞춰서 회원들이 교대로 와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다 갈 수 있게 채워 주셔서 매번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서울교회 집사님들 여서 오라고 맞아 주시며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고 울동하면서 또한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주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 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덧입고 옵니다. 루디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멀리 더 멀리

신동기 권사(12교구)

오늘도
골고다 흐르는 보혈
서을 십자칼
진하게 들들이고

하얀 목련 터뜨리며
홀연히 오시는
님의 발걸음 소리인가

아니
밤새 문 열어놓고
질 나간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물 떨구는 소리인가

당신의 깊고 넓은 가슴
종- 되어
두드리고 또 두드리

너와 나
두 손 꼭 잡은
살 속에 흐르는
생명의 소리

종소리
멀리 더 멀리 울리기 위해
오늘도
당신의 손과 발
다시 뭉치고 있나

세상의 어두움
종소리에 날려버리고
기어코 나를 버리는
하늘의 소리여...

신임 교역자 탐방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정수길 목사(5,6교구, 고령부 지도)

부목사 청빙 면접 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장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주특기도 없고 특별히 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일이 맡겨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장점이 없는 것을 도리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실로 무모한(?) 대답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살과 인격을 배울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거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울러 따뜻하고 친절하게 반겨주시는 교역자들과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목회'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심방과 중보 기도에도 힘쓰겠습니다.

2003년 여름, 유럽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던 중에 독일의 보름스(Worms)를 방문했습니다. 보름스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나아가 이단으로 몰려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독일 황제 찰스 5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21년에 의회를 소집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가 고백한 짧은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주님이 아니면) 다른 아무 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fe mir. Amen.)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만을 바라보았던 루터의 고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역지에 서 있는 오늘 저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에서 온 편지-전신일 성도

충성, 선교하러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
아들은 군인으로써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들 속에서 오전과 오후와, 저녁의 모든 일과가 요일별로 정해져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조금씩 터득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런 주어진 일상 안에서 주일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저는 철저한 신앙인임을 진하게 느껴가는 중입니다. 주일예배는 찬양대와 베이스 반주로, 수요일엔 영외 교회에서 베이스 반주를 하고 화요일예배 때도 베이스 반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이곳에서는 이렇게 교회 일을 맡아 하는 것에 대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힘든 환경들이 저를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일전에는 '군대에 온 목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큰 소리로 "선교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곳에 목적을 가지고 온 만큼, 주어진 일에 열심히 임하고 동료들을 섬기며 동기들과 앞으로 입대할 후배들을 열심히 전도하며 존경할 만한 선입이 되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초적인 모든 일들은 제게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모포 개는 일부러 구두 닦는 일, 다림질과 바느질, 빨래까지 뒤편 신속하고 완벽하고 절도 있게 해야 하는 일들,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일들이 평소에 느꼈던 제 자신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해군군악대는 헌병대나 의장대에 필적할 만큼 군기가 강합니다. 1년만 이렇게 하면 사람 자체가 많이 바뀔 듯합니다. 아버지께서 입대하던 날 아침에 당부하시던 말씀이 늘 제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는 먼저 가서 감당하고, 힘든 일은 술선수범 하라시던 귀한 가르침에 늘 순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외롭고 기댈 곳 없는 각박한 이곳에서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말씀밖엔 의지할 곳이 없음을 많이 느끼고 또 느낍니다.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이른 새벽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기도하며 신앙에 관한한 제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잡아보려 애쓰는 중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상이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 제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실 줄 믿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이 많이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그리십니다.

잘 견디며 훌륭한 군인이 되어가겠습니다
서울교회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들 신일 올림

호산나 학교를 돕자

새로 개교한 호산나 학교(학장: 이종운 목사)에서는 봉고차 15인승 1대, 컴퓨터 22대, 피아노 4대가 필요하여 성도들의 헌신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빈약한 자들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4일(화) 신임군중목사 수련회 개최설교와 특강을 한다. 16일(목) 한국 로잔위 중앙위원을 소집한다.
- 이사: · 최영남 집사는 집사(1교구) 대치4동 930-2 T.564-6424
· 최진영 성도 이혜경 집사(1교구) 도곡택솔@
· 김삼연 집사 변은영 집사(1교구) 종로구 명륜2가 주상복합아남@ 762-8544
· 송기춘 집사 이민숙 집사(1교구) 도곡 택솔@ T.6242-6312
- 정보발령: 김대훈 성도(10교구): KBS 기술전략기획팀
- 개업: · 이동만 집사(2교구) 3월16일(목) 팔레스 호텔 내 체스터필드 양복점 지점 개업 T.533-4506
· 양동덕, 나미경 집사(12교구)'둘둘치킨(동천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7 하우비프라자 106호 T.031-889-7022
- 독남/독녀: 김지연 성도(정현숙 권사의 딸) 박진철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3월12일) 비비전도회(3월19일)
- 금주의 식사: 권강철 집사 가정-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교회계공
- 예배 및 집회

천국시민양성-6교구 연합다락방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명조 집사(6교구)

6교구는 지난 3월 3일(금) 교구장 노송성 장로님 댁에서 교구 연합모임을 가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정수길 목사님과 함께 6교구의 많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파킨슨씨 병으로 고생하시는 김순남 성도님과, 척추 수술 후 회복중인 한금희 권사님도 참석하셨고, 지혜영 전도사님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하고 화목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목사님도 무척 놀라워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 오신 정 목사님은 가족 소개를 해주셨고

이어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직접 준비하신 맛있는 떡, 전, 다과 등을 함께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예수님이 좋은걸 어떡할니까"란 찬양을 부를 때에는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정수길 목사님이 증거하신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곳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교구 모든 성도님들은 새봄에 새로 오신 정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므로 영생을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을 비롯한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2. 새로 개교한 호산나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3. 북한의 신앙자유와 인권회복 위하여
4.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